

# 창녕군 “우포따오기 사수, 이상 無”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따오기 관리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따오기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4시간 비상합숙 근무를 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포늪생태관과 우포따오기복원센터 관람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대구·경북·경남 등 창녕과 인접한 지역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우포따오기복원센터의 따오기 관리자의 안전을 위해 비상합숙 근무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중 진행할 따오기 야생 방사에 대비해 복원센터에서는 따오기의 야생적응훈련이 한창이다. 3월부터는 따오기 번식에 대비해 산란, 부화, 육추 등 1년 중 가장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다. 만약 복원센터 관계자가 1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복원센터가 폐쇄되고 따오기복원사업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창녕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겨울철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비상합숙 근무를 한 바 있으며, 따오기를 AI로부터 원천차단 방역하는 데 성공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직원들의 24시간 비상합숙 근무를 통해 코로나19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복원에 성공한 따오기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창녕군은 지난 3월 6일 올해 첫 따오기 산란에 성공했다. 군은 2008년 따오기 복원을 시작한 이래 10년 이상 축적된 경험

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401마리를 증식했다. 이 중 2019년 5월에 40마리를 방사하고 36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올해는 따오기 부화 번식으로 자연부화 15마리와 인공부화 15마리를 증식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자연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사전훈련의 일환으로, 자연부화에 치중할 예정이다.

2020년 상반기 우포따오기 야생 방사를 목표로 40개체를 선별 완료해 위치 추적기 부착과 대인 대물 적응 등 야생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우포따오기 첫 산란 소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름에 빠진 국민들에게 작게나마 활력소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건강한 따오기 증식과 체계적인 야생적응 훈련으로 2020년 상반기 우포따오기 야생 방사와 성공적인 자연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창녕 구경 <sup>9경</sup> 오세요

창녕군은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 부곡온천, 화왕산 국보 33호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를 비롯한 우수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자연·온천·문화가 함께 하는 생태문화 천국입니다.



1. 우포늪과 따오기      2. 화왕산 억새와 진달래      3. 부곡온천



4. 낙동강유채축제와 남지개비리길      5. 산토끼노래동산과 우포잠자리나라      6. 만옥정공원과 진흥왕 척경비 술정리 동 삼층석탑



7.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8. 3·1민속문화제와 영산만년교      9. 관룡사와 용선대